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39) - 靑海祠 (청해사)

청성 이씨 시조 李之蘭, 李重老 영정 봉안



최 중 규
포천문화재단 회장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402에 위치한 靑海祠 (청해사)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5호
- 소재지 :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402
- 규모 : 대지 150평, 정면 7.3m, 측면 3.70m

靑海祠는 抱川市 蒼水面 柳洞 里에 있으며, 1974년 創建(창건)되었고, 靑海李氏 始祖인 李之蘭 (이지란)과 그의 8代孫인 李重老 두 분을 제향하는 곳이다.

李之蘭(이지란)은 本名이 洪두란으로 高麗末 恭愍王 17년에 女眞에서 출생하였고 高麗에 귀의하여 太祖 李成桂를 도와 紅巾賊(홍건적)을 무찌르고 開成에 功을 세워 開成一等功臣이 되었고, 靑海李氏로 賜姓(사성)

을 받았다. 그의 8代孫 李重老는 선조 25년 1605년 16세에 武科及第(무과급제) 하였고 仁祖反正에 功을 세웠다.

1. 李之蘭(이지란)
2. 李重老

李重老(이중로)는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청해(靑海), 자는 鎭之(진지), 조선개국공신 李之蘭(이지란)의 후손이다. 16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과 훈련도감낭청을 지내고, 1621년(광해군 13)에 伊川府使(이천부사)가 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때 훈련대장 李興立(이흥립), 장단부사 李璣(이서)등과 함께 장졸을 모아 참여하였으므로 誥封(고봉)정

사공신) 2등에 錄勳(녹훈)되었고 淸興君(청흥군)에 봉하여졌다. 광해군이 강화도로 쫓겨나자 강화부윤에 임명되어 보살피었다. 그 뒤 오위도총부부총관·훈련도정을 겸임하고, 포도대장을 지냈다. 1624년 李适(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부도체찰사 李持燾(이시발)과 함께 황해방어사로 李반란군을 저지하는 책임을 맡았다. 예성강 상류인 馬灘(마탄)에서 여울물을 지켜 적을 막으려 한 싸움준비를 하던 중, 적의 급습으로 관군이 패할 때 우방어사 李璣(이서)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향년 48세이다. 왕은 그가 늙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장렬하

게 전사하였다. 하여 매우 슬퍼하였다 한다. 다행히 그의 시신은 柳孝傑(유효걸)이 戰歿(전복)으로 싸서 묻고 표를 해놓았기 때문에 찾았다. 이괄은 난은 李守白(이수백)등이 이괄의 목을 베어와서 함복함으로써 끝을 맺었으나, 그의 아들 文雄(문웅)은 이수백이 아버지를 죽인 이괄의 무리라 하여 대낮에 목베어 복수하였다. 숙종 10년(1684)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금천의 愍忠廟(민충사)에 배향되었다. 숙종 12년에 「忠壯(충장)」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으며, 정조 8년(1784)에 부인 鄭氏(정씨)에게 旌閼(정려)의 은전이 배풀어졌다.

교육에세이 11

겸손의 미덕

오늘은 여러 학생들에게 겸손의 미덕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맹사성(고려 말 공민왕 9년 ~ 조선 세종 20년 (조선 세종 9년 우의정, 좌의정을 지낸 청렴결백하기로 이름 높은 명재상)은 고려 말 우왕 12년, 27세에 문과에 장원급제 하였습니다. 그 분이 어느 외적으로 근무 하던 중에 있었던, 무명선사와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고을에 어느 보잘 것 없는 스님을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더군요.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그 스님 왈 "그건 어렵지 않지요, 나쁜 일은 하지 말고 대중을 위해 선행하며 봉사하면

됩니다."하니 맹사성이 말하기를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먼 길을 걸어온 나에게 해 줄 말이 고작 그것 뿐이요?" 하고 거만하게 불었습니다. 또다시 스님은, "백문이 불여 일견(백문 듣으면 뭐하느냐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지, 백문이 불여 일견(백문 보면 뭐하느냐) 깨달아야지, 백문이 불여일행(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실천에 옮겨야지)"이라고 하니, 맹사성이 다 듣고 나서, "예, 잘 알았습니다."하고 자리를 일어나려 하니, 스님이 차나 한잔 하고 가라며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찾잔에 물이 넘치도록 계속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반바닥에 물이 고이고 웃을 적어 맹사성은 화가 나서 불었습니다. "스님은 어찌하여 잔에 물이

넘치는데 계속 물을 따르시요?" 라고 묻자, 스님은 화가 잔뜩 난 맹사성을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차물이 넘쳐 반바닥이 적시어 지는 것은 아시면서 자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스님의 이 한마디에 맹사성은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고,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오는 데 그만 문지방에 이마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맹사성이 또 스님에게, "문을 크게 만들어 달아 놓으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다닐 수 있지 않았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또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숙이면 부딪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이 말은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면 자기 인품에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맹사성은 겸손한 마음으로 고을 원님으로서 선정을 베풀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좌의정까지 지내었습니다. 이분의 행실은 바로 겸손이었고, 자기를 들어내지 않고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하고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바르고 성실하며 겸손하게 사십시오. 겸손은 여러분의 인격을 한 차원 더 높게 승화시켜 줄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과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대 형
포천교육청 교장

세익스피어 에세이

십이야 축제의 의미



박 정 근
대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요새 한국인들에게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최고의 축제는 월드컵 응원에서 발견된다. 축구시합이 무엇이기에도 그토록 국민 모두를 열광하는 걸까 의아스럽기도 하다. 아마도 잃어버린 축제정신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지 아닐까. 잃어버렸던 축제에 대한 향수가 발동하여 저토록 응원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간은 태초부터 개개인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려는 욕구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동물로서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를 추구하기도 한다. 모순적 성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에 다른 동물과는 다른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왔을 것이다. 우리 민족도 절기마다 자연의 변화에 따른 축제를 얼마나 즐겼던가. 설과 정월 대보름, 단청, 단오, 추석명절 등을 마을 단위로 흥과 노래를 곁들이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먹고 마셨다. 사실 축제가 없었다면 민족고유의 문화마저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틀 정도이다.

축제는 인간사이의 맺혀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세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낭만희극은 당대의 축제를 바탕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십이야(Twelfth Night)'이다. 십이야는 크리스마스 후일의 마지막 밤을 춤과 노래 그리고 게임 등으로 즐기는 축제일로서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의 관습이기도 하다. 축제는 인간사회의 맺혀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은 개개인의 욕망을 자유분방하게 즐기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는 전체적인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천차만별의 욕망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작품은 인간의 부분별한 정열로 인해서 뒤엉켜 있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어, 사랑의 부조리성을 희화화한다. 오시노 공작은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올리비아라는 귀족 처녀에게 감상적인 사랑을 늘어놓는다. 그는 여행 중 난파를 당한 후 남장 하인으로 변장을 하고 성(gender)과 신분을 숨기고 있는 바이올라에게 자신의 연서를 전달하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바이올라는 공작에 연정을 품고 고민한다. 또한 올리비아는 오시노 공작의 사랑타령에는 오빠에 대한 조의를 이유로 거절하면서도 남장여자인 바이올라에게 한 눈에 반하여 추근댄다. 관객들은 동성연애적인 연상을 유발시키는 그녀의 희극적 접근을 과안대소로 터뜨리며 즐길 수

있다. 사랑의 혼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이올라의 쌍둥이 오빠 세바스찬이 난파에서 살아나 이 곳에 가세하면서 더욱 짙어진다. 왜냐하면 올리비아는 세바스찬을 바이올라로 잘못 알고 사랑의 공략을 퍼부어 그로부터 승락을 받은 후 자신을 찾아온 바이올라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잡아떼자 소동을 벌였던 것이다. 잘못된 사랑의 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올리비아의 집사 말블리오의 신분상승의 환상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마님 올리비아를 짝사랑한다. 그는 청교도적 윤리를 내세우면서 올리비아의 삼촌인 토비경의 유증자금을 비난하고 공격한다. 하지만 그의 경직된 자세는 올리비아 집안에 풍미한 축제추구세력과 갈등을 일으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디오니소스적 도취경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토비 일당은 십이야 축제일이 허락하는 한 마음껏 파행적 축제행위에 몰두하는데 이 작품의 희극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토비경은 에이큐리크의 올리비아에 대한 구애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의 돈을 우려내는 행위라든지, 허너 마리아와의 신분과파괴적 결합을 통해서 축제가 가지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복돋운다. 그는 축제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징처에 앞장선다. 축제를 즐기는 행위는 규율과 질서로 다스리는 공동체가 분성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무도덕적인 시간과 공간이다.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욕망의 불만족을 축제를 이용해서 풀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압당한 욕망은 사나워지거나 왜곡되어서 시민들의 자연성을 손상시키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변질하게 한다. 이런 축제의 내재적 효과를 무시하는 말블리오 같은 위선자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 가면 쓰고 거룩한 체하는 거짓된 연기를 일삼는다. 토비는 말블리오가 걸려들 듯을 마련한다. 올리비아의 필체를 모방해서 주인마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편지를 그가 잘 다니는 곳에 떨어뜨려 놓는다. 그는 영락없이 밟아 걸려드는데, 사랑의 조건은 바보처럼 허락이 웃고, 괴상한 노란 양말을 신는 것이다. 축제를 망치는 그는 꼼짝없이 자신이 경멸하는 광대가 되고 만다. 토비 일당은 뒤에서 숨어서 웃을 참지 못하며, 과장되게 예의를 차리던 말블리오가 어물리지 않는 광대 짓을 하는 것을 본 올리비아는 그가 미쳤다고 판단한다. 토비일당은 그를 미친놈으로 몰아세워 광에 가두고 공동체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축제정신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벌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극이 낭만희극의 전형적인 결말인 풍요제적 형태를 보여주는데, 영계있었던 사랑의 혼돈들이 정리되어 각자 자기 짝을 찾는데 성공하는 것이다. 오시노공작은 남장을 벗은 바이올라와 올리비아는 바이올라로 잘못 알고 사랑을 받던 세바스찬과, 토비는 마리아와 결혼하게 된다. 역시 결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축복 받는 사랑의 결실이다. 이 극의 말미에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말블리오의 이의제기가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행복한 축제 속에 묻혀 버린다. 우리는 축제의 진정한 목적과 역할을 알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능동적 축제 참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2층 풍천민물장어

16년동안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고 있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는 최상급 이동갈비 사용으로 육질에서 당연 으뜸입니다.



신메뉴 출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250석 보유, 연중 예약 실시★
★고객을 위한 차량 항상 대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 542-1887~8